고흥 관광 새 장 연다…거금도 명품길 조성 첫 삽

비단둘레길·적대봉 생태탐방로 착공식…1단계 구간 2027년 완공 예정

공영민 군수 "꼭 거닐고 싶은 명품길…해양 친화 관광 랜드마크 될 것"

고흥군이 지난달 31일 거금도 명품 비단둘레길 및 적대봉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고흥군이 거금도 명품길 조성 첫 삽을 떴다.

고흥군은 지난달 31일 금산면 금의시비공원에서 비단둘레길과 적대봉 생태 탐방로 착공식과 금의시비공원 전망대 준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고흥관광의 새로운 명소이자 랜드마크가 될 거금 관광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비단둘레길 조성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거금도 해안을 한바퀴 도는 51.3km 구간으로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비단둘레길 중에는 데크길·야자 매트길·전망대 등이 조성된다.

이번 착공식을 가진 구간은 3단계 중 1단계 사업인 익금~오천마을(6.7km) 구간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조성된다.

현재 설계용역 중인 2단계 사업은 오천마을에서 명천월포 구간 11.3km 구간(사업비 57억원)이며, 나머지 3단계는 월포에서 1단계 사업 시작 지점인 익금까지그리고 연홍도 일부 등 총 33.6km(사업비 29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단계별 비단둘레길 사업이 완공되면 금산면 남해안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대봉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12.2km의 생태 탐방로와 황토 맨발길, 전망대, 데크로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탐방로는 금의시비공원에서 적대봉을 가로질러 홍연삼거리까지 연결되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심신으로 느끼면서 소록도와 녹동항의 수려한 다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금의시비공원 전망대는 국토교통부의 해안 및 내륙 발전 사업으로, 총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망대와 복합문화 공간, 주차장,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공영민 군수는 "금산면은 고흥 관광의 6대 권역 중 하나인 거금 녹동권이 지향하는 해양 친화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누구나 꼭 한번 거닐고 싶은 명품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 이야기 전도사' 문화관광해설사 모집

군, 14일까지 신청…만 20세 이상 5명 내외 모집

고흥군이 '고흥의 이야기 전도사' 역할을 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관광객 증가로 높아진 해설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품격 있는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인원은 5명 내외이며,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군민 중 역사·문화·관광에 관심이 많고 소통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주말·공휴일 활동 가능자, 외국어 가능자, 해설 유경험자는 우대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고흥군청 관광정책실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하반기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10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스토리텔러로서 관광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고흥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www.goheung.go.kr)이나 고흥관광 누리집(www.tour.goheung.go.kr) 또는 관광정책실 관광기획팀(061-830-5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학교폭력 없는 학교 함께 만들어요"

순천경찰, 신학기 합동 캠페인 사이버 도박·딥페이크 등 근절

순천경찰은 2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이버 도박 근절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학(警·學) 등교맞이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날 풍덕중에서 열린 캠페인은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시, 풍덕중 교사, 학생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PM 교통사고, 딥페이크, 사이버도박 범죄 위험성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 면서 "신학기인 3~4월을 학교폭력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주기적 방문, 특별예방학교, 학교 요청시 교내 안전활동 협업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봄날의 하림 책을 부르다'

광양중앙도서관 '북콘서트' 14일까지 신청…16일 개최

광양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는 16일 북콘서트 '봄날의 하림, 책을 부르다'를 개최한다.

작가 겸 가수인 하림〈사진〉은 독창적인 음악 감성으로 대중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뮤지션으로,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깊이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적 색채를 녹여내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 왔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생과 직장인 등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행사로 기획됐으며, 하림의 북 토크와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하림은 동명의 그림책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노래와 함께 다정하게 풀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연에서는 하림과 함께하는 싱어롱 챌린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 또는 전화(061-797-3864)로 신청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수향 광양시 중앙도서관팀장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열게 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독서 문화를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구례 산수유 대만 수출길 개척…1.2t 첫 선적

연간 최대 50t 수출 전망

'구례 산수유'가 대만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구례군이 지난 1일 구례군 산동농협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허재근 산동농협 조합장, 송해경 농협은행구례군지부 지부장, 산수유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 산수유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

산수유는 공진단의 주원료이며,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최고로 치는 약재이다. 구례는 전국 산수유의 85% 정도를 생산하지만, 최근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중국산 저가 산수유의 유입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동농협은 산수유 가격의 안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판로 확보를 추진하던 중 최근 급변하는 수출 시장의 틈새 공략을 통해 대만과의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

지난달 21일 군은 처음으로 1.2t 분량의 선적 협의가 완료되어 수출의 첫걸음을 디뎠다. 대만으로의 수출은 연간 10~50t 정도로 전망되며 이는 산수유 농가의 안정적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 수출 물량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물류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집안에서도 마을 방송이 생생하게 들려요"

보성군, 12개 읍·면에 가정용 수신기 보급…재난 대비 정보 전달

보성군이 재난에 대비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관내 12개 읍·면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

마을방송 수신기는 문자 안내보다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며, 문을 닫은 실내에서도 방송 청취가 가능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유용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재난대응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문덕면과 득량면 전 지역과 추가 신청 가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낮 시간대에 주민이 많이 머무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도 받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재난문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구형 휴대전화(피처폰) 사용자 등 일부 계층은 수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보편적 재난 전달 수단으로 마을방송 수신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수신기 설치 완료 이후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총 3,848명 중 95%(3,656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했고, 이 중 76%(2,921명)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 이유로는 '방송 음질이 깨끗하다'(81.5%), '다시 듣기 기능이 유용하다'(53%), '시계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52.1%) 등이 꼽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진, 산불, 수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은 무엇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춰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난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낭도~하화도, 새 뱃길 열렸다

'대형카훼리 3호' 차도선 신규 취항 낭도 선착장서 1일 3회 왕복 운항

여수시의 낭도에서 하화도까지의 새로운 뱃길이 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낭도~사도~추도~상화도~하화도 항로에 태평양해운㈜의 99t급 여객선 '대형카훼리 3호'가 신규 취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대형카훼리 3호를 이용해 지난 주말 총 300여명의 관광객이 입도했다. '대형카훼리 3호'는 승객 128명과 승용차 11대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으로, 낭도 선착장에서 1일 3회 왕복 운항한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따라 그동안 여수~둔병 항로를 통해야만 입도할 수 있었던 사도를 쉽게 다닐 수 있게 됐으며, 소형 여객선으로 결항이 잦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추도는 정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도선과 사선으로만 입도가 가능했는데, 선착장 공사를 완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접안하게 됐다.

추도 주민은 "그동안 정기 여객선이 없어 섬 주민과 섬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불편이 컸는데 매일 여객선이 다니니 섬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기 여객선의 첫 취항을 반겼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신규 노선을 추가 운항함으로써 그동안 교통편이 없던 추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당일 섬 여행과 화물 수송도 가능해졌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편의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